

한국어 대명사들과 조음성의 등급*

†성원경^{*}, †박수준, †차건희, †박재득, †서래원
†시스템공학연구소, 자연어정보처리연구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연어처리실

Korean Pronouns and Anaphoric Scale

†Won-Kyung Sung^{*}, †Soojun Park, †Keon-hoe Cha, †Jae Deuk Park, †Laiwon Seo

†Systems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SERI), Natural Language Information Processing Dep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ection
e-mail : {wksung, soop, chakh, jdpark}@seri.re.kr / seo@computer.etri.re.kr

요약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명사들은 재귀적 대명사와 비재귀적 대명사라는 두 개의 구분된 통사 범주로 분류된다는 대명사의 이분법적 통사 분류 가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Hertz 92ab]가 제시한 조음성의 등급(anaphoric scale)이라는 개념에 의거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대명사들을 두 개의 구분된 통사 범주로 이분하지 않으며 오직 서로 다른 조음도(anaphoric degree)에 의해서만 구분하는 스칼라식 관점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대명사들의 조음도를 기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통사 의미적 준거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그간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은 대명사들의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통사 의미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하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와 같은 대명사들의 통사 의미적 다양성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분류의 관점에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된다.

1. 서론

70년대 중반부터 현대 언어학과 자연어 정보처리 분야는 대명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해석 원리를 밝히려는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축적된 관련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80년대 초반에는 대명사들을 재귀적 대명사류와 비재귀적 대명사류로 나누고 그 각각의 해석 원리에 대한 형식화를 시도한 Noam Chomsky의 결속이론(Binding Theory)이 출현하였다 [Chomsky 81]. 결속이론은 등장 직후부터 관련 연구 분야들 사이에 많은 반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속원리(Binding Principles)라고 알려진 대명사들의 형식적 해석 원리들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시도되기

도 하였다[Kuno 87], [Pollard 87, 92]. 그러나 대개의 논의들은 결속이론의 결속원리는 문제를 삼아도 그 원리의 근본인 대명사의 이분법적 분류 자체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이후에 시도된 몇몇 선구자적인 연구들에서는 결속이론의 이분법적 대명사 분류의 경험적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Ariel 90], [Hertz 92ab], [Shim 93], [Dalrymple 93]. 또한 [Hertz 92ab]는 다양한 대명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명사들은 결속이론이 주장하는 바처럼 재귀적 대명사류와 비재귀적 대명사류라는 두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에서와 같이 그 양 극단이 각각 가장 지시적인(the most deictic) (혹은 가장 비조음적인(the least anaphoric)) 상태와 가장 조음적인(the most anaphoric) (혹은 가장 비지시적인(the least deictic)) 상태를 의미하는 조음의 단계(anaphoric scale) 상에서 그 각각에게 고유한 조음성의 정도(anaphoric degree)에 따라 배열

* 본 논문은 1994년도에 프랑스 마르느-라-발레 대학(Université de Marne-la-Vallée) 내에 소재한 전산언어학 연구 센터(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en Informatique Linguistique (CERIL))에서 발표한 [Sung 94]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될 뿐임을 보여주었다.

[그림 1] 조음성의 단계



2. 한국어 대명사들의 조음도 측정

본 연구는 한국어 대명사들의 해석 특성의 이질성을 드러내고 그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해 [Hertz 92ab]의 조음의 단계와 조음의 위계(anaphoric hierarchy)를 채택한다. 조음도 측정을 위한 준거 항목들 역시 [Hertz 92ab]에서 제안된 것들에 근거함을 밝혀둔다.

2.1. 지칭적(指稱的) 용법(ostensive usage)

지칭적 용법이란 대명사와 실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지칭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대명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용법이다. 따라서 지칭적 용법은 지시성(deicticity)의 징표이며 이 용법을 허용하는 대명사는 그렇지 않은 대명사보다는 보다 지시적이라고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him'은 'himself'보다 지시적이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보듯이, 'him'은 지칭적 용법을 허용하는 반면 'himself'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지칭적 용법은 지시 강세(deictic accent)를 수반한다. 지시 강세는 굵은 글씨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1) Give (him + *himself) a book!

불어의 경우도 영어의 경우와 동일하다. 불어 비재귀적 대명사 'lui'는 지칭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재귀대명사 'lui-même'는 그 같은 용법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2) Donnes-en un à (lui + *lui-même)!

그러나 다음의 예가 보여주듯이, 한국어에서는 지칭적 용법을 둘러싼 재귀/비재귀적 대명사들 간의 대립이 관찰되지 않는다.

¹ 지시(deixis)와 조음(anaphora)은 그 특성상 상호 대립적인 대명사의 두 의미 해석장치로서 지시는 대명사를 실세계의 대상과 연결시킴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조음은 언어적 문맥 내의 선행사와의 조음 관계 즉 "선행사-대명사"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대명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3) *이 책을 (그 + 자기 + 자기자신 + 그자신)에게 주어라!

한국어 재귀대명사들이 지칭적 요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전혀 특이하지 않다. 다른 언어의 재귀대명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재귀대명사들 역시 선행사와의 조음 관계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조음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예문 (3)에서, '그'가 지칭적 용법으로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이원 분류에 따르면 불어나 영어의 비재귀적 대명사들과 같은 부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칭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담화 내의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조음적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을 뿐이다[Park 85], [Shim 93]. 이 사실은 그가 영어나 불어의 비재귀적 대명사들과 비교하여 덜 지시적임을 의미한다.

2.2. 부정 양화표현 선행사(indefinitely quantified antecedent)

다음의 두 예문에서,

- (4) a. Everyone_i respects his_i teacher.
- b. Everyone_i doesn't respect himself_i.

부정(indefinite)양화사인 주어 'everyone'을 지시하는 영어 대명사 'his'와 'himself'는 논리학의 "변항(variable)"과 같이 해석된다. 그 지시의미(referential meaning)가 respect의 주체로 실현될 수 있는 각 개별 개체의 지시 의미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양화표현에 의한 결속의 가능성은 그 특성상 조음의 전형적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예문에서와 같이, 부정양화사 선행사는 그것이 실세계의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지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Hertz 92a].

한국어의 경우, 재귀사 '자기'와 '자기자신'은 (5)에서와 같이 부정양화사인 '각자'에 의해 결속될 수 있다.

(5) 각자_i가 (자기_i + 자기자신_i)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자기'와 '자기자신'이, '그 자신'이나, '그'보다 조음적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자신'과 '그'는 다음의 예가 보

여주듯이 부정양화사에 의한 결속이 ‘자기’나 ‘자기자신’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6) 각자_i가 (??그자신_i + ?*그_i)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2.3. variable reading / fixed reading

조용도의 측정을 위한 세 번째 기준은 대명사의 variable(혹은 sloppy) / fixed reading 에 관련된 것이다. 예문 (7)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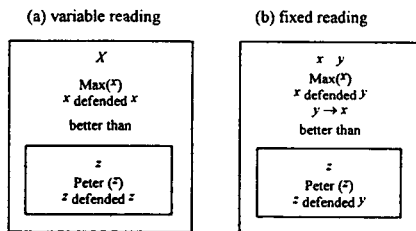
(7) Max defended himself better than Peter.

(7)은 해석을 위해 비교의 ‘than’ 우편에 VP ‘defended himself’를 복원하는 과정 중에 복원된 VP 에 포함된 ‘himself’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음의 (8ab)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².

- (8) a. Max_i defended himself_i better than Peter_j defended himself_j.
- b. Max_i defended himself_i better than Peter_j defended him_j.

(8a)에서와 같이 ‘himself’가 주어인 ‘Max’와 ‘Peter’에 묶인 변형처럼 이들 주어들을 차례로 선행사로 취하여 그 지시의미가 변화될 때 ‘himself’는 variable reading 을 갖는다고 하고, (8b)에서처럼 ‘Max’만을 선행사로 취하며 고정된 지시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fixed reading 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Sells 87]에서 제안된 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s(DRS) 형태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7)의 DRS



variable / fixed reading 의 가능성은 대명사에 따라 가변적이며[Sells 87] 또한 variable

² (7)은 또한 다음과 같이 ‘himself’와 ‘Peter’ 즉, 목적어 들 간의 비교의 의미를 지니는 accusative reading 역시 가능하다. Max_i defended himself_i better than he_j defended Peter_j.

reading 의 가능성은, [그림 2a]에서 볼 수 있듯이, 비지시적(non-referential)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명사의 조용도 측정의 준거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Hertz 92a]. 이 기준에 따른다면, variable reading 을 허용하지 않는 대명사는 그렇지 않은 대명사보다 덜 조용적이며, variable / fixed reading 을 모두 허용하는 대명사보다는 오직 variable reading 만을 허용하는 대명사가 보다 조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ng 94]. 다음 예문을 보자.

(9) 철수보다는 영수가 자기를 더 잘 변호하였다.

(9)의 ‘자기’는 우선 다음의 (10)과 같은 variable reading 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x defend x better than z defend z

반면 (11)과 같은 ‘자기’의 fixed reading 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그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11) x defend y better than z defend y (y =: x)

그런 면에서 ‘자기’는 (7)에서와 같이 variable / fixed reading 모두를 쉽게 허용하는 ‘himself’보다 더 조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variable / fixed reading 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와 다른 한국어 대명사들은 서로 다른 조용도를 갖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예문에서의 ‘자기자신’은 오직 (10)의 variable reading 만을 허용하고.

(12) 철수보다는 영수가 자기자신을 더 잘 변호하였다.

(13)의 ‘그’와 ‘그자신’은 ‘himself’처럼 (10)과 (11)의 variable / fixed reading 모두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13) 철수보다는 영수가 (그의 동생 + 그자신)을 더 잘 변호하였다.

따라서, variable / fixed reading 에 의하면, ‘그’나 ‘그자신’보다는 ‘자기’가, ‘자기’보다는 ‘자기자신’이 더 조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4. 분리 선행사(split antecedent)

다음의 예문을 보자.

(14) 철수_i는 영수_z에게 자기들_{iz}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14)에서 대명사 ‘자기들’은 ‘철수’와 ‘영수’를 동시에 선행사로 취한다. 이와 같이 대명사가 둘 이상의 분리된 명사적 표현들을 선행사로 취하는 경우 대명사는 “분리 선행사(split antecedent)”를 갖는다고 한다. 의미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대명사-분리 선행사” 관계는 일반적인 “대명사-선행사” 관계와는 아주 다르다. 이해를 돕기 위해, (14)를 다음의 (15)와 비교해보자.

(15) (철수와 영수)_i는 자기들_i을 후보로 추천하였다.

(15)에서는 동위 접속 명사구인 ‘철수와 영수’만이 ‘자기’의 선행사 구실을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15)의 ‘자기’는 문장 내에 명시된 ‘철수와 영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없다. 반면 (14)의 ‘자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 이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철수, 영수}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철수, 순이}, {철수, 기영} 혹은 {철수, 영수, 순이, 기영} 등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4)에서는 문맥 내의 개체 뿐 아니라 담화의 의미나 혹은 발화 상황에서부터 추론되어야 하는 개체들도 분리 선행사를 구성할 수 있으나 [Sung 94, 96], (15)와 같은 경우의 ‘자기’의 선행사는 오직 문맥 내에 명시된 요소들만을 포함한다³.

이와 같은 분리 선행사의 특성에 의하면, 분리 선행사를 취할 수 있는 대명사는 그렇지 않은 대명사 보다는 덜 조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Hertz 92a]도 지적인 바처럼, 조용 관계란 언어적 문맥 내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명사적 표현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는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분리 선행사를 취하지 않는 ‘자기자신’보다는 덜 조용적이라 할 수 있다.

(16) *철수_i는 영수_z에게 자기자신들_{iz}의

³ 대명사가 분리 선행사를 취하는 데에는 많은 통사적, 의미적 제약이 따른다. 영어, 불어 혹은 일본어에서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Lebeaux 84/5], [Sportiche 86]과 [Hertz 90, 91]를, 한국어 대명사의 경우는 [Sung 94, 96]을 참조하십시오.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또한 ‘그자신’과 ‘그’도 ‘자기자신’보다 덜 조용적이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그자신’과 ‘그’도 (17)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 선행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철수_i는 영수_z에게 (그들_{iz} + 그들자신_{iz})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3. 결론

대명사 이원 분류 가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Hertz 92ab]에 근거한 본 연구에서는 [Hertz 92ab]가 제안한 기준 항목들에 의거하여 한국어 대명사들의 다양한 통사, 의미적 특성들을 열거하고 그들 각각의 조용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대명사들의 조용도

	- deictic	↔	+ deictic	
	+ anaphoric	↔	- anaphoric	
	자기자신	자기	그자신	그
지칭적 용법	-	-	-	-
분리 선행사	-	+	+	+
fixed reading	-	+	+	+
양화표현 선행사	+	+	+*	-**
variable reading	+	+	+	+

* ‘그자신’은 양화표현 선행사과의 조용 관계를 갖을 수 있다. 그러나 예문 (6)에서와 같이 ‘자기’나 ‘자기자신’의 경우 보다는 부자연스럽다.
 ** 예문 (6)에 의하면, ‘그’와 양화사 사이의 조용 관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아주 제한된 경우에 ‘그’도 양화표현 선행사를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취할 수 있다[Sung 94, 96].

본 연구는 결속이론의 대명사 이원 분류 가설과 직접적으로 상치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재귀적 / 비재귀적 대명사를 구분하는 이원 분류 가설을 따르지 않고 다만 대명사들 간에는 조용의 위계만이 존재하며 그 위계 상에서 대명사들은 각각에게 고유한 조용성의 정도에 따라 서로 구분될 뿐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대명사들 간의 통사 의미적 특성들의 차이점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이원 분류 가설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대한 원인 설명이 대단히 어렵다.

4. 참고문헌

- [Ariel 90] Mira Ariel, *Accessing noun-phrase antecedents*, Croom Helm, 1990.
- [Chomsky 81] Noam Chomsky,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 The Pisa Lectures*, Foris Publications, 1981.
- [Dalrymple 93] Mary Dalrymple, *The syntax of anaphoric binding*, CSLI, 1993.
- [Hertz 90] Anne Zribi-Hertz, “Lui-même argument et le concept de “pronom A””, *Langage* 97, pp.100-127, 1990.
- [Hertz 91] Anne Zribi-Hertz, “Les pronoms réfléchis anglais liés à longue distance et la grammaire de l’opacité”, in J. Guéron & J.-Y. Pollock (eds) *Grammaire générative et Syntaxe comparée*, PUF, 1991.
- [Hertz 92a] Anne Zribi-Hertz, “De la déixis à l’anaphore : quelques jalons”, in L. Danon-Boileau & M.-A. Morel (eds) *La déixis*, PUF, 1992.
- [Hertz 92b] Anne Zribi-Hertz, “Les pronoms réfléchis : universaux et typologie du liage”, in H.-G. Obenauer & A. Zribi-Hertz (eds) *Structure de la phrase et théorie du li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Vincennes, 1992.
- [Kuno 87] Susumu Kuno, *Functional Syntax :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Lebeaux 84/5] David Lebeaux, “A Distributional Difference Between Reciprocals and Reflexives”, *Linguistic Inquiry* 14-4, pp. 723-730, 1984/5.
- [Park 85] Sung-Hyuk Park, *Pronominal and Anaphoric Elements in Korean*, Doctoral Thesi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5.
- [Pollard 87] Carl Pollard & Ivan A. Sag,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 volume 1, Fundamentals*, CSLI, 1987.
- [Pollard 92] Carl Pollard & Ivan A. Sag,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23-2, pp.261-303, 1992.
- [Sells 87] Peter Sells, Annie Zaenen, Draga Zec, Reflexivization variation : Relations between Syntax, Semantics and Lexical Structure, in M. Iida, S. Weschler & D. Zec (eds) *Working Papers in Grammatical Theory and Discourse Structure*, CSLI, 1987.
- [Shim 93] Bong-Sup Shim, “Le pronom coréen ki”,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22, pp.137-161, 1993.
- [Sportiche 86] Dominique Sportiche, “Zibun”, *Linguistic Inquiry* 17-2, pp.369-374, 1986.
- [Sung 94] Won-Kyung Sung, “Pronoms réfléchis coréen et échelle d’anaphoricité”, *Mémoire du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en Linguistique Informatique* 13, Institut Gaspard Monge, 1994.
- [Sung 96] Won-Kyung Sung, *Etude des pronoms coréens*, doctoral thesis, Univ. Paris 7, 1996.